

정권말 부쩍 잦아진 장관들 해외출장

“꼭 가야 할 필요 있나”
대부분 일정·목표 ‘느슨’
책임회피성 외유 논란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장관들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나올 만한 출장 일정이 많은 게 공통점이다. 정권 말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장관들이 마지막 근무를 책임회피성 외유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질타를 받은 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이달 17~18일 레스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방한을 전후로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했다. 14~16일 싱가포르와 스리랑카를 방문한 윤 장관은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스리랑카에선 대통령도 예방했다.

외교부에서는 “북한 김정남 피살이 국제규범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데 뜻을 모으고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윤 장관 대신 안창기 2차관이 위원회에 나오자 미·중 간에 사드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방문 일정이 과연 ‘시급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30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들 국가와의 수교 25주년 축하와 고려인 동포 격려가 출장의 이유였다. 일본이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역사 외교가 심각해지는 데다 세월호 인양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나흘간 국내 업무를 비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교육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킨 지난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메니스탄 등 3개국 출장길에 오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칼리드 알 팔리 에너지산업광물 자원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카타르에서는 알 사다 에너지산업부 장관을 만난 후 튀르키예 메니스탄에서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이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장관과 면담한 후 지멘스스마트 공장을 방문하는 데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 방문과 사무총장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굳이 지금 시점에 유럽 출장을 가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해마다 5월 말~6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총회가 열리는 데 장차관급이 가곤 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5~22일 터키와 스페인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민간 합동 수주지원단 단장 자격으로 민간 건설사 대표, 공공기관장과 함께 한국이 대형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측면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간 합동 수주지원단이 호주와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단장은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맡았다.

조시영·고재만·박태인 기자



구속 기로에…침묵 택한 박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일반인이 이용하는 법원 계단을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다. ▶관련기사 A4면 <사진공동취재단>

알립니다

대선후보 모든 것 RayP에서 확인

매일경제가 만드는 프리미엄 정치뉴스 웹 페이지(Raythep.com)가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정보를 망라한 ‘2017 대선후보의 모든 것’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대선 관련 뉴스와 후보들의 지지율은 기본이고 △대선후보의 가상 ‘자기소개서’ △후보 측근을 소개하는 ‘돕는 사람들’ △후보별 상세 ‘대선 공약’ △후보 생각을 알 수 있는 인터뷰 △대선의 재미를 높여주는 후보별 ‘2017 윤세’ 등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선후보의 발언과 소문의 진상을 밝혀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2017 대선 팩트체크’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4월 중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대선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대선 이후에는 ‘당선자 페이지’를 신속히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 대선후보의 모든 것’은 매일경제 홈페이지(www.mk.co.kr)와 모바일웹(m.mk.co.kr),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가정신 ‘실종’ 잠재성장률 더 추락시켜

경영학회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도 낮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술 변화에 노사가 함께 대처하는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이영면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혁신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집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김도현 국민대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이 고착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경영학회가 나섰다. 한인구 경영학회(KAIST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12명의 분야별 경영학자가 모여 ‘기업경쟁력 제고 전략’을 연구한 것이다.

경영학회는 30일 서울 KAIST 홍릉캠퍼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조직 문화 △패러다임 △전략 △사람경영 △노사관계 △기업가정신 등 6개 분야 대표 경영학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5월 나머지 분야의 연구 내용을 발표한 뒤 통합학술대회가 열리는 8월에 두 번의 발표를 묶은 종합 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 경영학자들이 모인 만큼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은 냉철했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함께 저출산·고



한인구 경영학회장

령화, 정치 불안, 과도한 규제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 미흡 등이 겹쳐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잠재성장을 추락

가장 암울한 부분으로 꼽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아닌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영면 교수는 “기업이 잘나가고 근로자의 삶이 함께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기업이 어려운 데 노조만 잘나가는 것도 장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정신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사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외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활발해지는 문화를 만들라는 조언이다.

김도현 교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대 기업은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신생 기술회사”라며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대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기업가정신의 토양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美하원, 北제재 3개안건 초당 처리

6차 핵실험 징후 곳곳 포착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관련 3개 안건을 초당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테러지원금 재지정 법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교위가 이날 심의·결의한 8개 안건 중 3개 안건이 북한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이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28일 공개한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에 100여 명이 운집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같은 모습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당시와 흡사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38노스는 이날 위성사진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펌프를 이용해 북쪽 강에도 고인 물을 비탈으며 흘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핵실험 준비작업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강경 대응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임스 울지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위성을 이용한 핵EMP(전자기펄스) 공격을 하면 미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지 국장은 “북한이 핵EMP를 사용하면 미국의 90%가 살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북 선제타격, 미사일방어체계(MD) 고도화 등의 긴급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발전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봉쇄·군사력·협상의 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지지하며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초래했다”며 “중국은 ‘엄중한 코리아(the wrong Korea)’에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진영 특파원

안철수 17.4%…2위 급부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개월 만에 2위를 탈환했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잇달아 압승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향후 대선 본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매일경제와 MBN이 3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3월 5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35.2%로 1위를 달렸다. 안 전 대표가 4.8%포인트 오른 17.4%로 2위에 올랐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1%포인트 하락한 12.0%로 3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각각 9.5%(0.7%포인트 하락), 7.7%(1.8%포인트 하락)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당 홍남·PK(부산·경남) 경선에서 2연승을 달린 안 전 대표가 안 지사로부터 이탈한 표를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안 전 대표가 60대 이상에서 24.3%를 얻어 문 전 대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2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4주차 여론조사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다자구도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홍 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간 5자 대결에서 문 전 대표는 지지를 43.9%로 1위를 지켰다.

A6면에 계속

정석환 기자

매경·GIST포럼 A16면

Money&riches B1~8면

biz times C1~8면

돈되는 분양 D1~4면

더라움

2룸+거실+풀옵션

실투자 3천만원대

멀티형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딱! 3분
의정부 전철역사(신세계백화점)

임대 100%보장제

트리플 역세권

GTX 확정
KTX 1호선 의정부역
경전철

강남 20분대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서울에도 없는 복합문화단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K-POP 클러스터
대규모 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창작자 레지던스
호텔, 스튜디오, 문화상품 판매장 등이 조성

국내 최대 테마파크
보로로 테마랜드 & 패밀리호텔
보로로 등 캐릭터가 테마별로 배치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테마랜드와 레저 휴식 공간 조성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시설
신세계 사이언 프리미엄 아울렛

세계적인 프리미엄 아울렛인 미국 사이언 그룹과
신세계와의 합작투자로 최대 문화유동 단지 개발

서울권 유일의 복합리조트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서울권 최초 조성되는 테마파크형 복합 시설, 레저
및 호텔시설, 숙박을 갖춘 도심 유일 복합리조트

경기북부 최대 종합병원 총사자만 3,000명 이상

경기북부최대규모의 종합병원
을지대학병원/을지대학교 캠퍼스
총사자만 3,000명 이상, 사내 대학·수업까지
다채로운 인제 양성과 인공 상권 활성화 기여

의정부가 서울!
서울이 의정부다!

미군기지가 떠난 의정부 투자메카로 발돋움!
복합문화 의료 융합도시 최첨단 프로젝트 조성!

부가세 無 **종합 부동산세 無** **중도금 무이자 無**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특별한 일상이 펼쳐지는 Creative Style

C Type

선착순 호수지정 청약금 100만원 수협은행 1130-0050-2749 미개약시 100%환불

사은품증정 분양금 1899-7555